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나 현 신 · 전 혜 정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Historicism i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rtworks of Vivienne Westwood and Christian Lacroix-

Hyun Shin Na · Hei Jung Chun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an's University

(1999. 7. 16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ism in modern fashion and to introduce the appropriate approaching and application method of costume histor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Post modernism, historicism is an important theme in modern fashion.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 of Post modernism is considered and the historicism in the Post modern architecture and literature is studied. Next, through the artworks of Vivienne Westwood and Christian Lacroix who are excellent in the modernization of historical costume, the historicism in modern fashion is studied.

The characteristic of historicism in Post modern architecture and literature comes from the nostalgia, aspiration for the past, and recurrence to the nature. It is not the revival of the past but the crossover of the past and the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ism in modern fashion are as follows.

- form; style, silhouette, and items that are shown in the historical costume come with the mixture of modern textile, new technique, and modern design.
- Materials and patterns; classical and romantic patterns, the artwork of the artist, and the fabric which is remake of remains are used.
- Technique; Tailoring techniques and the pattern making of the historical costume are used.
- Trimmings and etc.; Lots of handworks, trimmings and accessories that are inspired from the past are used.

These elements are not come from a certain place and time but mixed surpassing places and times. With that, not only the form and the position of wearing but the meaning and purpose of wearing are changed.

**Key words:** historicism, Post modernism, crossover; 역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크로스오버

## I. 서론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현대인들은, 보다 깊은 마음의 풍요와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과거를 동경한다. 'The culture of Fashion'에서 Christopher Breward는, 20세기 후반 쿠퍼르와 기성복 디자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본래의 의미와 내용을 분리시킨 현대적 감각의 접근을 통한 과거 복식사로부터의 자기 참고적인 특성이라 했다.

과거에 대한 이러한 노스텔지어는, 현대 패션에 역사주의(historicism)의 출현을 가져왔다. 오늘날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복식 양식, 그 가운데 특히 유럽의 전성기였던 르네상스, 로코코 등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의상의 이미지를 나름대로 소화하여 90년대의 새로운 패션으로 등장시키고 있다<sup>1)</sup>.

예술사조와 관련지어 살펴 볼 때, 모더니즘 패션은 과거나 전통을 외면하는 몰역사주의가 지배적이었고, 1980년대 이후 패션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클래식시즘과 모더니즘, 아방가르드와 노스탈지어의 융합으로 과거, 옛것을 이용하여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고자 하는 '역사주의'를 시도하였다<sup>2)</sup>.

즉, 역사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한 특성으로, 20세기 컬렉션의 중요한 주제로서 부각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흐름으로 여러 학문 분야에서 회자되었고, 패션에 있어서도 다수의 연구<sup>3)</sup>가 선행되었다. 반면, 그 특성의 하나로 중요시 언급되어야 할 양식인 역사주의는, 복고풍이라는 스타일의 흐름으로 축소 언급되었거나, 특정 시대의 의상이나 장식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주의 연출에 대표적인 디자이너 2인의 작품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작품 분석의 대상이 되는 디자이너로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를 선정하였다.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디자이너 웨스트우드와 현시대를 풍미하는 프랑스의 쿠퍼리에 라크로아는, 과거의 시대양식에 대한

탐구와 재현에 관심있는 많은 현대 디자이너들 가운데 과거 복식을 단순한 형태의 모방이 아닌 과거와 현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훌륭히 발전시킨 대표적 디자이너로<sup>5-7)</sup> 사료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 복식의 모던화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해, 영감의 무궁무진한 보고(寶庫)로서 이용될 수 있는 과거 복식에 대한 응용 방법을 제시하며, 이로 인해 대개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국한되었던 서양 복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유도 및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은 우선, 미술서와 사상서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역사주의의 뿌리가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배경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문학에 나타난 역사주의의 예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역사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디자이너 2인의 생애와 작품의 특성을 패션 관련 문헌 및 기사를 통해 고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각각의 작품집 위주로 선정하였다. 웨스트우드의 작품집은 근자의 작품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특정 컬렉션에 편중되지 않고 있으며, 라크로아의 작품집은 디자인 영감의 근원이 된 과거 복식을 함께 제시하여 그 분석 작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과거 복식과의 연계성을 비교하기 위해, 복식사적 문헌 자료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상을 통해, 역사주의가 갖든 현대 패션 작품이 과거 복식의 어떠한 디자인 요소를 모방, 전환시켜 과거 복식의 리바이벌을 이룩하였는지 형태, 재질, 문양, 기술, 트리밍 등의 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현대 패션의 역사주의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패션 디자인 창출은 과거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이미 출현했던 과거의 룩이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품으로 재활용되어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나 발전은 과거와 단절시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일찍이 시인 바이런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근간이 되는 역사주의는 복고풍, 리바이벌리즘(revivalism), 근본주의, 맥락주의 등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패션에서는 레트로룩(retro-look), 패션 리바이벌(fashion revival) 등으로 자주 등장하며<sup>8)</sup>,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과 문학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역사주의의 근원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배경 및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문학에서 보여지는 역사주의를 통해, '역사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 1.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배경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문화현상으로 대두되어 일상의 거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모더니즘의 논리적 계승, 발전인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적 반작용이며 단절이다<sup>9)</sup>.

인류역사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창조정신에 의미를 두어, 과거의 전통적 관례와 가치를 거부하며 인간 자신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력, 사실에 기초한 실험정신을 중시하였다. 모더니스트들은 역사적 단절을 통해 생존 가능한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문화유산을 전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술 창조를 촉박한다고 생각하고 예술 창조에 해로운 이러한 문화적 제도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0)</sup>.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적 아방가르드에 깊이 뿌리 박힌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문화현상으로, 후기산업사회의 대표적 산물이다. 박명희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4인<sup>11)</sup>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역사성, 토속성, 상징성 및 전위성<sup>12)</sup>으로 귀결지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첫째, 역사적 요소도입에 의한 인간적 욕구 충족 및 역사적 유희를 즐기는 역사주의, 둘째,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인간 본래의 전통요소를 즐기는 토속성, 셋째, 현대인의 복잡한 의미 추구 표현에 의한 해소로 은유법, 도시대중의 전위적 단편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상징성 및 전위성으로 나뉘며, 이러한 특성이 절충적이며 복잡하게 표현된다고 하였다<sup>13)</sup>.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대해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학자 F. Jameson은 'Post 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alism'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피상성·깊이의 소멸, 정서의 퇴조, 주체의 죽음에 따른 행복감, 역사성의 상실로 인한 향수와 혼성모방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외에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규명은 여러 방면의 학자 가운데서 선행되었으며, 본문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역사주의에 한정하여 건축과 문학에 나타난 역사주의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역사주의를 정의하였다.

### 2.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나타난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건축으로, 여기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양식을 통해 나타난 역사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유럽에 널리 유포되고 있던 고도로 장식적이고 낭비적인 건물들에 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었고, 포스트모던 건축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도시의 삭막함을 불러 온 이러한 물개성적이고 비인격적인 건축 양식이었다.

기능주의적 건축양식의 투명성, 단순성에 반대하며 모더니즘 건축과의 단절을 기획했던 Jencks는, 구조의 복합성, 건물의 이중 혹은 복합가치성 및 맥락성을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정선된 역량과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는 현실화의 경향을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역사주의적 절충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했다<sup>14)</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미래를 향한 전진만큼 과거로 복귀하는 고전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 그 예로서 James Stirling의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Michael Graves<sup>15)</sup>의 '파르고 무어헤드', Ricardo Bofill의 '호수의 아케이드—사람들을 위한 베르사유', '황금수의 광장' Philip Johnson의 'AT & T', Charles Moore의 '이탈리아 광장', Robert Stern, Arata Isozaki, Robert Venturi, Hans Hollein 등의 최근 작품이 있으며, 그 밖에 활약하는 건축가로는 Aldo Roche, Mario Botta, Robert Clear, Tom

Beeby 등이 있다<sup>16)</sup>.

Stirling과 Wilfoed의 '슈투트가르트 신국립미술관 (1977~84)'은 매너리즘이나 바로크풍의 물결치는 구조의 외관과 고전주의적 회랑, 일면 무의미해 보이는 장식의 도입 등을 통해 전통에 있어서 전보다 훨씬 우수한 방법으로 문맥주의, 다원주의, 상징적 장식에 대한 목적을 실현시켰다. 고풍스러운 석재와 현대의 강철빔, 대형 판유리벽, 팝아트적 색조 속에 느닷없이 나타나는 고전주의풍의 원형 중정(中庭) 등은 고전적인 모형을 신선하게 변형시켰다<sup>17, 18)</sup>.

포스트 모던적 표현 가운데 하나인 직설적인 리바이벌리즘은, 1904년 Makim Mead & White가 설계한 뉴욕의 기념비적인 펜실베니아 역사건물(이것은 그 이후에 파괴되었다)에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카라칼라 황제의 목욕탕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리바이벌리스트의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Allen Greenberg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개 영국에서 건설되었다<sup>19)</sup>.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 나타난 역사주의는 역사적 참조를 통한 과거 양식 형태를 출발로, 역사적 재질과 새로운 재질과의 혼합, 장식성의 가미 등을 통한 시대의 절충으로 표현되며, 이는 모더니즘 건축의 물역사주의와 상반된다.

### 3.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 나타난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듯,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해 있던 것을 다시 재결합시켜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에 있어서 대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낭만주의나 모더니즘 전통에 속하는 작가들처럼 작품의 독창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선배나 동료 작가들의 작품에 자유롭게 의존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집필하는 것을 중요한 창작 원리로 삼는다. 이러한 상호 텍스트성<sup>20)</sup>은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등 거의 모든 문학 장르에 걸쳐 매우 폭넓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르는 소설로서, 그 가운데 특히 미국의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이다. 이들은 과거의 문학 작품, 역사적 기록이

나 자료와 밀접한 관련을 맺거나, 자신들이 이미 발표한 작품에서 플롯, 작중인물, 주제를 취해오기도 한다<sup>21)</sup>. 즉,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보여지는 역사주의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출발, 독창성이 강조되지 않은 채 과거 작품에 의존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표현된다.

### 4.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의 여러 특성 가운데, 본고의 초점이 되는 역사주의는 모더니즘의 물역사성에 반한 것으로, 역사에 대한 충실한 재현이 아닌 역사적 요소의 도입과 절충에 의한 재배합으로 반역사적인 역사주의<sup>22)</sup>라 할 수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의 메시즌마다 끊임없이 대두되는 복고(retro) 테마에서도 보여지듯, 시대적 양식의 절충적인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어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등장한다.

포스트 모던 패션에서의 복고적 요소는 과거에 대한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닌 이미지의 차용으로 표현된다. 예를들어 Karl Lagerfeld는 고대 그리스 키톤을 연상시키는 수직선 형태의 드레스를 디자인하기도 했고, Takashi Ohno는 버슬 스타일의 페티코트를 스커트의 디자인적 요소로 재현하기도 했다<sup>23)</sup>. 즉, 과거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실루엣·특정 아이템이 현대적 재질·새로운 기술·현대적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통적인 직물과 패턴, 과거의 제작 기술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 향수를 이끄는 장식·헤어스타일·액세서리 등이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이상의 요소들은 자유로운 절충과 결합의 조합 속에서 새로운 현대 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 문학, 패션을 통해 이상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역사주의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특성으로, 과거에 대한 애정 어린 향수와 현시대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찾거나 하는 과거로의 동경, 인간 본연의 회귀성에서 출발하여, 이를 옛것에 대한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현재 인간의 감정과 정서, 시대상에 맞게 재정립된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간차를 극복한 시대성의 크로스오버(Crossover)<sup>24)</sup>인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역사주의가 복식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대표적 디자이너 2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 III. 디자이너 분석 및 비교

#### 1. 비비안 웨스트우드

##### (1) 생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41년 영국 태생으로, Harrow 예술학교를 마친 뒤 교직에 몸담으려 하다가 Malcom McLaren과의 만남으로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록(Rock)이나 펑크와 같은 다양한 음악적 변화에 민감했던 그들은, 런던의 King's road에 부티끄를 열어 영국 젊은이들의 패션 기준이 되었다. 상점의 이름은 Let in Rock(1971)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영향의 변화에 따라, 'too fast to live, too young to die'(1972), 'Sex'(1974), 'Seditionaries'(1977), 'World's end'(1980)로 개점되었으며, 1982년에는 'Nostalgia of mud'라는 또 다른 부티끄를 열었다. 1984년, McLaren과의 결별 이후, 서양의 역사와 전통에 바탕을 둔 디자인으로 새롭게 방향 전환하였으며, 메리퀸트 이래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디자이너로 성공하였다.

##### (2) 작품 분석

탐구할 과거가 있는 한, 아이디어는 결코 바닥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웨스트우드는, 과거와 현대의 공명을 파괴하고 뒤엎는 탁월한 능력으로<sup>2)</sup>, 역사 속의 의상을 현대 패션에 다양하게 출현시켰다. 그녀는ダイ나믹한 과거 의상의 원천으로 다가가 재단법을 모방하여 패턴에 수용하기도 하였고, 재해석하여 모던화 시키기도 하였다<sup>3)</sup>.

1970년대 영국에서 성행했던 젊은이 하위 문화인 펑크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는 패션 디자이너로, 그녀의 초기 10년간 작품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은 1950년대 젊은이 문화의 비행적인 스타일에서 유래하는 1950년대의 리바이벌 룩으로<sup>4)</sup>, 파괴적이고 전위적이었다.

반면 1981년은, 웨스트우드가 패션에 있어 무언가 독특한 것을 시작했던 시기로, 과거 패션으로부터 디테일을 첨가하여 이전 시대의 로맨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최초의 펑크 여성이었던 웨스트우드는 그녀의 상점명을 World's end(1981)로 바꾸고 열광적으로 환영받은 뉴로맨틱(New Romantic)과 파이어릿 룩(Pirate Look)<sup>6)</sup>으로 정착을 시작했다. 그녀는 의상의 역사적인 재단법을 탐구하여, 17세기 테일러링에 기초한 웨이스트코트, 풍성한 소매의 셔츠, 주름잡힌 허리와 리본으로 부리를 묶은 바지, 18세기 남성복에서 두드러진 태슬(tassel) 장식으로 뉴로맨틱의 시작을 예고했으며, 이는 파괴성과 전위성이 두드러졌던 종전의 그녀 의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파이어릿 콜렉션은 역사적 리바이벌리즘을 이용한 것으로<sup>7)</sup>, 역사를 이미지 뱅크로서 사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구체화시켰다<sup>8)</sup>.

팝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재빨리 받아들였다<sup>9)</sup>. 팝 싱어 Adam Ants의 'prince charming' tour 공연과 앨범 표지를 위한 웨스트우드의 1982년 의상은, 스탠딩 칼라를 스톱과 자보로 장식하고 소매 끝에 프릴을 단 셔츠, 금색 단추가 달린 울로 만든 검정색 연미복, 삼색기로 된 먼 새쉬, 가죽 벨트, 은색 가죽의 브리치즈, 버클이 달린 가죽 라이딩 부츠로 구성되었다(그림 1).

1985년, 웨스트우드는 빅토리아 시대의 크리놀린에서 영감을 얻어, 접는식의 후프에 짧은 중형의 스킨을 조합한 미니 크리니(mini-crini)를 선보였고, 이를 테일러드 재킷과 플랫폼 슈즈에 매치시켰다. "생명력을 가진 과거로부터 크리놀린과 같은 무언가를 얻어온다... 패션은 새롭게 고안되지 않는다."라고 한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또 다른 풍속인 코르셋도 부활시켰다. [그림 2]는 영국 여왕의 10대 시기를 영감으로 한 작품으로, 스토머커 형태가 달린 코르셋과 미니크리니를 조합한 빨강색 벨벳 미니 드레스, 록킹 호즈(Rocking horse) 플랫폼 슈즈이다. 이는 해리스 트위드, 타탄 체크, 테일러드 등의 영국 전통의 요소에 유우머가 깃든 작품이 주종을 이룬 1987년의 '해리스 트위드(Harris Tweed)' 콜렉션 작품이다.

1989년, '키테라섬으로의 여행(Voyage to Cythera)' 콜렉션에서는 왓트(Watteau)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이미지화 하였으며, 1990년 초상



[그림 1] 팝 싱어 Adam Ants를 위한 의상



[그림 2] 코르셋과 미니 크리니

화(Portrait) 컬렉션에서는 18세기 화가 Boucher 그림을 스토마커에 프린트하고, 18세기 가구 디자이너 André Charles Boulle의 거울 뒷면 문양을 신축성 있는 검정 벨벳 전면에 재현하였다. 1991년의 '성장(Dressing up)' 컬렉션에서도 Frans Hals의 초상을 스토마커에 프린트하였다.

1993년, '영국 숭상(Anglomania)' 컬렉션에서는 주제가 의미하듯, 스코틀랜드 고지대에서 유래된 타탄 체크를 현대의 앙상블과 매치시켜, 직물 속에 영국의 전통이 깊이 베어있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1994년 '카페 사회(Cafe Society)' 컬렉션 작품에서 웨스트우드느 툴(tulle)로 만든 짚시풍의 블라우스, 라피아 짚으로 만든 페티코트, 웅장한 전원풍의 스커트를 착용하고 역사속의 한 장면을 직접 연출했다. 같은 해, '에로틱 부위(Erotic Zone)' 컬렉션에서는 신축성있는 파운데이션에 와이어 케이지(wire cage)를 붙여, 19세기 와이어 버슬(wire bustle)로 인해 만들어졌던 여성스러운 버슬 실루엣을 재현하였다.

1996년 '여성들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잘 모른다(Les Femmes ne connaissent pas toute leur coquetterie)' 컬렉션은 18세기의 천박함과 유희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왓또 가운을 선보였다.

1996년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14세기의 뿌르뿌엥(pourpoint)을 현대화시킨 카멜헤어(camel hair) 코트와 뿌르뿌엥 라인으로 재단된 남성용 가운 등을 통해 재단에서 보여지는 오리지널한 역사 의상과의 유사성을 살필 수 있었다.

1997년, '5세기 이전(Five centuries ago)' 컬렉션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I세의 의상에서 복제한 이국적 동물 프린트의 더치 새틴(Duchess satin) 직물로 드레스를 제작하고 이를 17세기의 높게 솟은 휘스크(whisk) 칼라가 연상되는 재킷과 조화시켰다(그림 3). 'The Queen & her Punk'라는 사진 제목에 맞게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과 재킷에 꽂힌 안전핀 등의 과다한 액세서리로 연출하였고, 우측 하단에는 핑크 분장을 한 남성의 모습도 보인다.

[그림 4]는 1990년대 초의 작품으로 16, 17세기의 목둘레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러프를 목둘레와 손목둘레에 단 블라우스, 그 시대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인 가발(wig)을 현대적인 수트와 매치시킨 것으로, 이를 비롯한 최근 그녀의 컬렉션 타이틀<sup>33)</sup>을 보면 그녀가 프랑스의 18, 19세기 유희를 숭배함<sup>34)</sup>을 느낄 수 있다.



[그림 3] '5세기 이전' 컬렉션



[그림 4] 러프칼라, 가발

## 2. 크리스찬 라크로아

### (1) 생애

1951년, France 태생으로, 대학에서 Art history, classic Greek과 Latin을 공부한 뒤, 1972년 파리에서 L'Ecole du Louvre에 들어갔다. 박물관 큐레이터를 그만 둔 뒤, Guy Paulin에서 Hermès의 디자이너로 2년간, 일본에서 일본인 디자이너의 보조로 1년간 활동하였다. 파리로 돌아와 1982년, 오프 꾸뛰르의

Jean Patou와 합작하여 침체되었던 쿠티르를 부활시켰다.

1987년, 자신의 쿠티르 하우스를 오픈하였으며, 기성복 라인과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다.

### (2) 작품 분석

예술사학자였던 그의 작품은 역사적 이미지에 대한 감흥과 지나간 시간을 소생시키는 힘을 갖았으며, 따라서 역사는 그의 작품 세계에 있어 필수적인 원동력이다.

"내 의상은 과거의 역사, 문화 등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어느 무엇도 새로이 발명되지 않는다."라는 1998년 3월 Vogue紙에서의 기술은, 라크로아의 많은 디자인 작품이 과거에 자기 참고적인 특성을 가짐을 입증했다<sup>36)</sup>. 이러한 출발에서 비롯된 디자인 창출을 위해, 그는 정크샵(junk shop), 박물관, 극장, 오페라 또는 투우장 등에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Patou를 위한 디자인에서 그는 바스락거리는 페티코트, 퍼프볼(puffball) 스커트와 같은 패션의 부활로 침체되었던 패션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sup>37)</sup>. 이를 위해, 18세기 퍼프 드레스에서 영감을 얻은 페티코트로 부풀린 실크 타프타 드레스(그림 5), 19세기 집정부 시대의 특징적인 스타일인 엠파이어 드레스, 19세기 나타난 과장된 퍼프 슬리브의 이브닝 드레스



[그림 5] 18c 퍼프 드레스에서 영감을 얻은 실크 타프타 드레스

등을 선보였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최초의 컬렉션에서는 어린 시절에서 기억되는 프랑스 남부의 전통적 민속 의상들을 영감의 출처로 두었다. 이는 티어드(tiered), 플라운스(flounced) 스커트, 스모킹(smocking), 자수, 짧은 볼레로 조끼, 짧은 재킷 등으로 구성되었다<sup>38)</sup>. 쿠티르 예술의 중심인 전통적 수공의 부활을 옹호하는 화려한 의상들은 역사적인 의상을 현대적인 특색으로 바꾸려는 그의 열정을 반영하였으며<sup>39)</sup>, 페치워크, 브로케이드, 모피, 레이스, 민속적인 프린트와 자수, 심지어 금 자수에 이르기까지, 의상에 사용하기에 값비싼 것은 없었다.

과거 의상의 기술적 측면도 유심히 살펴, 18세기의 보넷에서 보여지는 뤼슈(ruche), 플리즈, 프릴, 펀턱, 오버랩핑 인서션(overlapping insertion; 천과 천 사이에 끼우는 레이스를 말함) 등,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비범한 기술과 솜씨를 화려한 형태로 수정, 발전, 확장시켰다<sup>40)</sup>.

또한 라크로아는 재킷의 재단과 구성을 연구하였다. 예를들어 Rastro 재킷(팔꿈치가 구부러진 소매, 꼭맞는 어깨와 바디스)을 연구하기 위해 과거 서적을 참고하였다<sup>41)</sup>. 18세기 스웨덴 회화에서 영감을 얻었던 Rastro 재킷과 그 시대 바지를 검정색 레이스로 선 장식이 된 빨강색 타프타 볼레로 재킷과 버튼 달린 요크로 구성된 바지로 변화시켰다. 재단과 테일러링의 역사적인 방법, 액세서리의 기술적인 스타일은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나 크리스찬 라크로아와 같은 디자이너들로 하여금 지난 세계의 매력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sup>42)</sup>.

역사주의의 표방 중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은 형태적인 모방으로, 앞중심에 역삼각형의 바스크(basque) 형태 조각이 있는 18세기를 연상케 하는 구조적이고 몸에 꼭맞는 바스크 재킷도 있고, 보석이 자수된 파스텔 색의 꽃무늬 다마스쿠 직물이 패치워크된 바스크 드레스(그림 6)도 보이며, 역사속의 레이싱된 코르셋 형태로 바디스가 장식된 드레스도 있다(그림 7). 그밖에도 1911년 제작된 스웨덴 빅토리아 여왕의 모닝 드레스 앞판의 레이스로 된 핏슈(fichu) 효과를 재현한 의상, 1907년 부다페스트의 베틀시장에서 발견한 티가운을 재현한 의상 등,



[그림 6] 바스크 드레스



[그림 7] 레이싱된 코르셋

형태의 모방은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19세기 집정부시대의 엠파이어 웨이스트라인은 빈번히 이용되는 소재로, 플리츠로 앞판에 변화를 준 엠파이어 드레스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에 유행했던 스펜서 재킷에서 비롯된 퍼프 슬리브의 짧은 볼레로 재킷 등을 선보였다(그림 8).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있었던 패션 전시회에서 1880년대 아워글래스형의 짧은 가슴을 가진 재킷을 본 그는, 이를 진주와 금 자수 장식이 놓





[그림 8] 스펀서 재킷과 엠파이어 드레스의 변형

인 타이트한 실크 저지의 거들 가디건으로 전환시켜 현대적 재질과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주었다. 함께 착용된 니 삭스(knee socks)는 과거 호즈(hose)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되었다. 또한, 18세기 모닝코트 형태의 롱 재킷을 40년대의 직물인 트위드와 결합하는 등, 과거 복식의 형태는 현대적 재질과 결합하여, 역사주의를 나타내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화되었다.

**3. 작품속에 나타난 역사주의의 특성 분석, 비교**

웨스트우드와 라크로아의 작품에서 보여진 역사주의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는 과거 복식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합, 변형되어 거듭난다.

형태에 나타난 역사주의적 특성은 김정부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과 같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 아워글래스 형 재킷·퍼프 슬리브·페티코트로 부풀린 퍼프볼 스커트, 버슬, 크리놀린 등으로 연출되는 다양한 실루엣, 코르셋·왓또가운·스톡·자보·스펜서 재킷 등의 특정 아이템과 현대적 재질·새로운 기술·현대적 디자인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재질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타탄 체크·트위드 등을 현대적 앙상블과 조화시키기도 하고, 문양에 있어서는 과거의 낭만이 느껴지는 로맨틱 패턴을 사용하거나 유물 속의 직물 패턴의 재현하기도 하고, 화가의 작품을 의상의 한 부분으로 끌어오기도 한다.

제작 기법에 있어서는 과거의 테일러링 기술, 역사 속의 복식에 나타난 재단법을 바탕으로 한 패턴의 사용 등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뤼슈·플리츠·핀턱·인서션·비딩·자수 등 전통적인 수공의 도입, 프릴·러프·태슬 장식, 가발을 이용한 헤어스타일의 재현, 초커(choaker) 등의 향수적인 액세서리, 모자 사용 등도 나타난다.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있어 출발은, 한 지역, 한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융합된다. 예를들어 패션이 영국과 프랑스간의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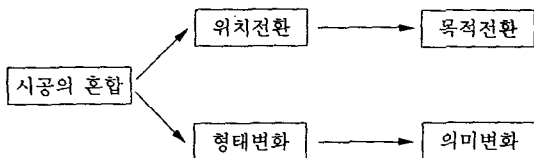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의 특성 분석

디자인 비 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크리스찬 라크로아
형 태	18c 셔츠, 바지, 왓또 가운, 코르셋, 크리놀린, 버슬, 자보, 스톡	18c 퍼프볼 스커트, 18c 바지, 코르셋, 버슬, 페티코트, 엠파이어 드레스, 19c 과장된 퍼프 슬리브, 19c 아워글래스형 재킷, 스펀서 재킷, 불가운, 바스크
재 질	타탄 체크직물, 해리스 트위드	타탄 체크직물, 장식적 수공예 직물
문 양	엘리자베스 1세 드레스의 동물 문양, 18세기 화가의 그림, 18세기 가구에 나타난 문양	로맨틱 패턴, 유물 속의 직물 패턴
제작기법	17세기 테일러링, 뿌르뿌엥의 재단법	테일러링, Rastro 재킷의 재단법
트리밍 및 기타	태슬, 프릴, 러프, 18세기 모자, 가발	뤼슈, 플리츠, 핀턱, 오버랩핑 인서션, 비딩, 자수, 초커, 향수적인 목걸이

디어 교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웨스트우드, 그녀 작품에 기초가 되었던 영국 테일러링의 편안한 매력과, 디자인과 프로포션에 대한 프랑스의 엄격함을 취해,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융합시켰다. 타탄 체크 직물로 된 현대적인 앙상블은 서로 다른 시공의 혼합이며, 미니크리니는 1960년대를 풍미하던 미니와 19세기의 크리놀린의 혼합이고, 라크로아의 타탄 체크로 된 프랑스풍 불가운은 역사속의 두 공간이 혼합된 작품이다.

이렇게 발전된 의상은, 시공의 융합 과정에 있어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내용의 전환을 가져온다. 후프가 달린 크리놀린은 19세기 제정시대의 고안물이며, 미니는 런던을 풍미하던 1960년대의 산물로서, 전자는 여성 의상에 있어 구속을 내포하며, 후자는 미니스커트와 연관된 해방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시대와 공간을 대표하는 둘은 여성 인체의 은폐와 노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함께 융화되었다<sup>49)</sup>.

그 외에도, 역사속의 복식은 착용 위치의 변화 속에서 목적의 변화도 수반한다. 과거의 코르셋은 가슴에서 힙 위까지를 커버하는 언더웨어로 아름다운 인체 실루엣을 구성하는 체형조절이 그 목적이었던 반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은 외의화된 형태로 섹시함이 강조된 미적 요소가 강조된 아이템으로 환영받는다.



<표 2> 현대 패션에서 역사주의

이렇듯, 역사주의의 특성들은 과거와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혼합 속에 형태 변화와 위치 전환, 그에 따른 의미와 목적의 부차적 변화를 수반하며, 이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현대의상으로 재구성된다.

#### IV. 결론 및 제언

실용성과 모던함의 강조로 삭막해진 현대인들에

게 과거의 환상과 낭만을 주는 역사주의는, 패션의 중요한 테마로서 오늘날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성으로, 패션에 있어서는 복고풍, 리바이벌, 레트로 등의 용어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러한 역사주의의 특성 규명이, 과거 복식에 대한 응용 방법, 서양 복식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활용 방안 제시에 요구된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는 우선 역사주의의 뿌리가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출현 배경 및 특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문학에 나타난 역사주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대 패션에서 역사주의 연출에 뛰어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의 작품을 통해 과거 복식과의 연계성을 비교,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모더니즘에 대한 반동인 동시에 연장으로 출현한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의 문화적 지배 현상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 역사주의는 모더니즘 건축의 물역사주의와 상반된 것으로, 고전적인 양식에 현대적 재료나 역사적 재료와의 혼합, 장식성이 가미된 건축물로 나타나며, 문학에 있어서의 역사주의는 독창성이 강조되지 않은 과거 기록의 조합을 그 특성으로 한다.

역사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웨스트우드와 라크로아의 의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웨스트우드는 의상의 역사와 현대의 공명을 파괴하고 뒤엎는 능력으로, 다이나믹한 과거 의상의 원천으로 다가가 그 재단법을 모방하거나, 역사적 리바이벌리즘으로 18, 19세기의 셔츠, 모자, 코르셋, 크리놀린 등과 같은 아아템을 이끌어 현대패션에 출현시켰다. 또한, 라크로아는 비딩(beading)과 자수 작업, 장식적이고 수공예적인 직물로 역사적인 의상을 현대적인 특색으로 바꾸려는 그의 열정을 반영하였고, 이는 재단과 테일러링의 역사적인 방법, 액세서리의 기술적인 스타일에도 보여지며, 작품 속의 풍부한 텍스처, 버슬, 보닝 등은 18~19세기의 영감을 가진다.

그들의 작품 분석을 통해 본 현대패션의 역사주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형태에 나타난 역사주의적 특성은 가장 흔히 보여지는 것으로, 이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 스타일·실루엣·특정 아이템과 현대적 재질·새로운 기술·현대적 디자인과

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재질과 문양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직물의 사용, 로맨틱 패턴·유물 속의 직물 패턴 등의 재현·화가 작품의 도용 등으로 그 특성을 반영하였고, 기술에 있어서는 과거의 테일러링 기술·재단법의 사용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수공의 도입·장식·헤어스타일·액세서리 등도 나타난다.

문화, 역사의 접근에서 과거의 풍경이 현재에 이야기될 때, 과거에 의미하던 바는 사라지고 현재의 풍경 속에서 현재의 눈으로 읽히지며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듯이, 현대 패션에 응용된 과거 복식은 이상의 역사주의적 특성이 시공을 초월하여 선택, 융합된 것으로, 과거 그대로의 재현이 아닌 새로운 거듭남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형태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전환, 착용 위치의 변화에 의한 목적의 변화도 수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주의의 출발에 근원이 되는 서양 복식사는 학문적 가치 뿐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의 활용 가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디자이너 2인을 선정, 그 작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패션에 있어 역사주의를 표방하는 디자이너는 수없이 많으며, 역사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의 조합도 무척 다양하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역사주의의 표출 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가운데 역사주의의 특성 요소별로 디자이너들이 그룹핑(*grouping*)되어 나타날 것이라고도 사료되어,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1) '92-93 F/W에는 Victorianism, Edwarnism이 주 테마로 등장하였다.  
"로맨틱한 미의 테마, Edwarnism", 패션투데이, 1993, p. 35.
- 2) 김민자, "옛날은 다시 어떻게 오는가?", 월간 '땃', 1991, 10월호.
- 3) 박두영, 미야케 잇세이 작품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에 의한 디자인 연구,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4)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5) 박은실, 포스트모던 복식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6) 이정후, 포스트 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숙명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8.
- 7)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8) 정현숙,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6.
- 9)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97.
- 10) 정홍숙, 포스트모던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바로크 복식의 루프와 타슬을 중심으로, 복식, 25호, 1995.
- 11)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Manchester, New York, 1995, 233-234.
- 12) Gene Krell, Vivienne Westwood, Thames and Hudson, London, 1997, p. 14.
- 13) Patrick mauries, Christian Lacroix-The Diary of Collection, Simon & Schuster Editions, New York, 1996, p. 17.
- 14) 김민자, op. cit., 1991.
- 15)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현암사, 1995, p. 200.
- 16) Ibid., pp. 59-61.
- 17) Gold & Portogesi, K. Frampton, C. Jencks, R. Stern
- 18) 이는 모더니즘의 국제적 보편성, 물역사성, 단순성과 상반되는 개념들이다.
- 19) 1980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부설 생활문화연구소간, 연구보고 제15호, 1992, 129-132.
- 20)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건축에 있어서의 다의성과 절충주의, 예술과 문화 연구, 1993(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 연구소, p. 148.
- 21) 1977년 경, 아르데코나 신고전주의 건축에 대한 참조 어휘를 보다 분명히 다루었다.  
Nicgolas Ray, 김광현 역, 건축에서의 포스트모더니

- 즘, 예술과 비평, 1991(봄), p. 153.
- 16) Charles Jencks, 신수현 역, 포스트모더니즘, 열화당, 1992, p. 30.
- 17) Ibid., p. 42.
- 18) 임영방, op. cit., pp. 149-150.
- 19) Nicolas Ray, op. cit., 155-157.
- 20)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1954)은 로버트 마이클 벨런티의 『산호섬』(1858)을, 골딩의 『핀처 마틴』(1956)은 헨리 테프렐 돌링의 同名 소설(1916)을, 존 가드너의 『그렌델』(1971)은 『베오울프』를 상호 텍스트로 삼고 있으며, 그밖에도 이러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많다.  
김옥동, op. cit., p. 200.
- 21) Ibid., pp. 199-203.
- 22) 박명희, 1980년대 패션잡지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부설 생활문화연구소간 연구보고 策15輯, 1992, p. 151.
- 23) 김희균, 현대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연구-90년대 후반 복식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34-35.
- 24) 원래 오디오 용어로 후에 음악 용어가 되었으며 재즈, 라틴 등 필링이 다른 장르를 융합시킨 개념이다. 패션 용어로는 감각이 다른 유희파안 캐주얼과 아메리칸 캐주얼 또는 TPO가 다른 캐주얼과 포멀 등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인터크로스, 퓨전, 하이브리드와 동의어이다.  
조규화 편저,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 543.
- 25) Christopher Breward, op. cit., 233-234.
- 26) Gene Krell, op. cit., p. 14.
- 27) Richard Martin, Contemporary Fashion, St James Press, Detroit, 1995, p. 545.
- 28) Gene Krell, op. cit., p. 14.
- 29) 이러한 신화적인 파이어이트는 완벽한 뉴로맨틱이다. Ted Polhemus, *style surfing, what to Wear in the 3rd millenium*, Thames and Hudson, London, 1996, p. 68.
- 30) Richard Martin, op. cit., p. 547.
- 31)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Women & Fashion, Quarters Books, London, 1989, 146-147.
- 32) Prince는 벨벳과 레이스로, Kid Creole과 Coconuts는 Tropical Gangster처럼, Michael Jackson, Adam Ants는 1981년, 그의 히트 앨범 비디오에서 18세기의 용감한 노상강도(highway man)처럼 연출하는 등, 로맨틱한 의상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Boy George도 지나친 화장과 과장된 의상으로 환상을 더해주었다.  
Vicky Carnegy, Fashion of a decade-the 80's, Facts on File, New York, 1990, p. 28.
- 33) On Liberty(부타이틀: 'Le mieux est l'ennemie du bien'), 'Erotic Zones', 'Vive la Cocotte', 'Vive la Bagatelle'
- 34) Gene Krell, op. cit., p. 17
- 35) Patrick mauries, op. cit., p. 17.
- 36) Christopher Breward, op. cit., p. 232.
- 37) Patrick mauries, op. cit., p. 17.
- 38) Maggie Pexton Murray, Changing Styles in Fashion-Who, What, Why, Fairchild Pub., New York, 1990, p. 241.
- 39) James Laver, op. cit., p. 280.
- 40) Christopher Breward, op. cit., p. 44.
- 41) Patrick mauries, op. cit., p. 29.
- 42) Christopher Breward, op. cit., p. 234.
- 43) Caroline Evans & Minna Thorton, op. cit., p. 148.